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적이 일어난 술자리**

오랜만에 포항공장에 내려오신 부회장님께서 부장 중역들에게 한턱내는 회식자리였습니다. 큰 중국집 대 연회실, 길게 한줄로 자리잡은 식탁에 약 30여명이 두줄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70년- 80년대에 이르는 당시의 기업풍토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기업주가 주는 회식자리의 소주잔이 갖는 의미는 왕조시대의 어사주(御賜酒)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영광이요 거역할 수 없는 망극한 성인이었습니다. 그걸 거절이라도 하는 날엔 대역죄로 간주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약(死藥)이되어 돌아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 그 중국집의 자리가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술을 끊은 내가 진퇴유곡의 자리에서 서게된 것입니다.

"...어사주를 받을 것이냐, 사약을 받을 것이냐...!"

술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꿈게도 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저 잔을 막으실 이도 여호와이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소주병과 잔 하나를 직접 들고 손수 따라 주시며 내게로 다가 오고 있었습니다. 어사주를 받아 마신 앞쪽의 사람들이 두손으로 받쳐 되돌려 드린 그 빛나는 소주잔이 부회장님의 손에 의해,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은 채 드디어 나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부장 한 잔 받아!'

부회장님은 아무 의심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오실 때마다 술 사달라고 하던 나였고 불과 얼마전만해도 그랬었으니까요.

애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술 끊었습니다."

"...?......"

말 없는 부회장님의 잔을 왼 손이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받아!"

"죄송합니다"

순간 싸늘해진 회식 자리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연회석의 가장 중앙에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분도 움직이질 못했고 나도 그랬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옆 자리에 방금 잔을 받았던 이부장이 말했습니다

"이 친구 예수믿는다고 술 끊었습니다"

그러자 부회장님, 살았다는 표정으로

"그~래? 그럼 마시지 말아야지"

하시며 다음 자리로 넘어 갔습니다.

그 유월절 이후로 나는 이제 술을 안받아도 되는 공인을 회사만방에 알린셈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부회장님, 조상적부터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기적, 그거 별거아니었습니다.

알고보니 기적은 믿음의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숨이릴 때 들었던 추억의 말

『봉숭아 물 들인 손톱이 다 자라 없어지기 전에 첫눈이 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 인	'2002년 교회생활: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4권 25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6월 23일		
☎520-9464/021-292-1639. ☒71 Khyber Pass Rd.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아버지의 손톱



집안 형편이 어려운 나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래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밝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땀 이런 생활이 너무 힘들어 자주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내가 늘 안쓰러우신지 밤늦게 집에 오면 "힘들지?" 하면서 이것저것 챙겨 주셨건만 난 그런 어머니께 화만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 나머지 어머니께 회사를 그만 뉘야겠다고 말했습

니다. 어머니께선 아무 말씀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켓목에 세상 모르고 주무시는 아버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손톱엔 시커먼 때가 잔뜩 끼여 있어 보기에도 흉했습니다. 아들인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조그만 이발소를 운영하시는 아버지는 게을러 손톱도 깎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더욱 짜증이 났습니다.

"엄마, 아버지 손톱 좀 깎으라고 하세요, 창피하게 이게 뭐예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자신이 못나서 자식 고생시킨다고 가슴 아파하셨다. 그래서 돈을 좀더 벌려고 머리 깎고 남는 시간에 손님들 구두까지 닦느라 저렇게 손톱 밑에 구두약이 까맣게... "

순간 가슴이 찡함과 동시에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 내렸습니다. 그 날 저녁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나는 '좀 힘들더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요' 라는 속엿 말을 되뇌이며 퉁퉁 부은 눈으로 아버지의 낡은 구두를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고 또 닦았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안경은 비싼 것을 써라
눈이 잘 보아야 만사가 활기차다
총기 있는 사람이란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안경 때문에 총기없다고 오해받지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방학은
배우기를 쉬는 기간이 아니다
프로선수는 리그가 끝나도 쉬지 않는다.
배우기를 게을리 하면
삼류인생으로 남을 뿐이다

주 일 에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4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6(시 63)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463 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김종건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9:57-62(신 108)	인 도 자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예수 잘 믿는 사람"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89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 이
* 헌 금 기도 Offertory Prayer	(기도후 착석)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믿음 더욱 굳세라' (1절:권용일 집사외 2절:다같이)	다 같 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6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주 일 안 내	Tea Time
2일	김동숙	사카시다	권용일, 이지영	전병주, 정덕수
9일	김순자	신경화	박일영, 김종건	권용일, 김성국
16일	김영길	신영화	박정자, 정희자	최재학, 김교섭
23일	김종건	양경배	박상옥, 이금선	김영길, 김종건
30일	노은숙	윤형권	박병민, 이기중	박상옥, 박일영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담살뜰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
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00 <수요예배> 저녁 7:30 <아동, 학생> 주일 낮 12시 <청년부> 토 오후 6시

◀ 교 회 소 식 ▶

1. 교우소식
*한국방문
*정이지 집사(24일). 우리는 압니다. 김 집사님 안스러워 오래 머물지 못하고 열흘만에 오시는 그 깊이 숨겨놓은 마음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합니다.
*민광호, 김심홍 집사 가족(24일). 민 집사님의 설레이는 7년만의 외출! 많이 변한 고향, 눈에, 마음에 가득히 담아 오세요. 평안한 방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정옥 집사(규정, 규형 母). 지난 금요일(21일) 오셨습니다. 그간 평안 하셨지요?
*결혼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24일): 김경구 집사. 강은미 성도. 행~복하세요



『비단강이 비단강임은
많은 강을 돌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겠습디다
그대가 내게 소중한 사람임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겠습디다』

2. 사랑의 실천 '이삭줍기'(예고): 다음주일은 Silver Coin을 모아 드리는 주일입니다. 필리핀과 타이의 두명의 어린이에게 지원됩니다.
3. 수요일성경강해(출애굽기 강해): 마라의 쓴물(출 14장)에 왜 "나무"가 던져 졌는지요. 수요일예배는 꼭 참석해야 하는 안식일과는 다릅니다. 다만 주일의 말씀위에 더 풍성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열심입니다. 훈장처럼 여기는 많은 성경공부를 이수하기 보다는 일주일에 두 번의 말씀을 통해 변화와 성숙을 바라는 것이 우리교회의 방침입니다.
4. 구역장: 주일 결석구역식구에게 준비된 Pre paid 봉투를 이용하여 주보를 발송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피택 향존직 임직식(예고): 7월 둘째 주일(14일)이면 우리교회 창립 3주년 주일입니다. 향존직 임직식을 갖겠습니다.
6. Roger Hill 신부님 이암 예배: 토요일(29일). 오전 10시. 교회
*우리 교우들을 초대하였습니다. 함께 향송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 28일은 자녀들의 Term Break입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학생부, 청년부의 Camp가 있습니다.
* Camp 기간에 부모님들의 시간도 갖겠습니다.

◀ 눈물나는 밤엔 유머의 촛불을 ▶

영어 수업 시간만 되면 조는 학생을 보다 못해 선생님이 영어해석을 시켰다.
"I CAN SEE를 해석해봐".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하자 선생님이 한 단어씩 물으셨다
"I" 는? ==> (학생의 대답) 나는,
"CAN" 은? ==> 할수있다
"SEE" 는? ==> 본다.
"그걸 다 이어서 해석 해봐~!!".
학생 왈 "나는 할 수 있나 보다.!"